특허·기술이전 등 연구성과 대구의 2배 넘는데…

광주 연구개발특구 지원은 홀대

작년 입주기업 23% 매출액 10% 증가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된 이후 광주특구 내 기업체 수와 매출액이 각각 22.6%, 10.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특허와 기술이전 등 연구성과는 함께 출범한 대구특구보다 2배 이상 월등했다. 하지만 연구개발비 지원은 오히려 대구보다 뒤져 '홀대'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26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따르면 광주특구 내 입주기업·기관 553곳 전체를 직접 방문해 '2011년 연구개발특구 통계조사'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으로 광주특구에 입주한 기업은 509개사 매출액은 7조3354억원으로 집계됐다.

첫 조사를 실시한 2010년과 비교하면 기업체 수(415개→509개)는 22.6%, 매출액(6조6497억원→7조3354억원)은 10.3% 증가했다.

하지만 총 매출액 가운데 80% 이상인 6조원 가량을 삼성전자와 앰코테크놀로지 등 대기업이 차지하고 있다. 500곳이 넘는 중소기업의 매출은 1조3300억원에 그쳐 영세성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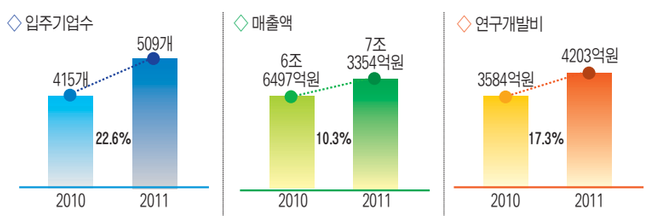
특구 내에는 이들 기업체 외에 출연기관 6곳, 국·공립기관 12곳, 공공기관 5곳, 기타 비영리기관 17곳, 대학 4곳 등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 기관들의 연구활동은 활발했다.

국내 특허 출원 8747건, 등록 4948건이었고, 해외특허는 출원 2569건, 등록 1676건에 달했다. 기술이전 117건, 이전료로 39억원을 벌어들였다. 연구성과가 총 1만8057건에 달했다.

반면, 지난해 함께 지정된 대구특구는 8231건(국내 출원 4065건·등록 3687건, 해외 출원 333건·등록 54건, 기술이전 92건)에 그쳤다. 대구특구와 비교하면 2.2배(119%)의 연구성과를 낸 셈이다.

■2010-2011 광주 연구개발특구 현황



하지만 연구개발비 지원은 대구특구보다 빈약했다.

광주특구 연구개발비는 전년(3584억원)보다 17.3% 증가한 4203억원(자체조달 901억원, 정부 등 외부조달 3301억원)에 그쳤다. 대구특구는 4469억원(자체조달 1148억원, 외부조달 3321억원)으로, 광주보다 5.9%(266억원) 높았다.

연구성과가 월등한 광주특구가 연구개발비 지원에서는 대구특구에 밀렸다는 것이다.

광주특구의 고용인력은 지난해보다 38.4% 늘어난 2만386명이 일하고 있다. 연구직 5450명(박사 2925명, 석사 1174명, 학사 1351명 등), 생산·관리직 1만4936명으로 파악됐다.

연구개발특구 광주기술사업화센터 관계자는 "광주특구의 연구성과는 대구에 비해 3배에 달하고 있지만 연구개발비 투자는 영세한 지역특성 탓에 대구에 못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항공사 외투보관서비스 아시아나항공(대표 윤영두)은 다음달 1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인천공항 국제선 탑승객의 외투를 무료로 보관해주는 '외투보관서비스'를 시행한다. 서비스를 원하는 탑승객은 탑승수속 후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서편 지하 1층에 위치한 세탁전문업체인 크린업 에어에 접수하면 된다. 〈아시아나항공 제공〉

태블릿 공급량 노트북 넘어섰다

지난달 태블릿PC의 디스플레이 공급량이 처음으로 노트북 디스플레이 공급량을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디스플레이 전문 사이트인 NPD디스플레이서치에 따르면 지난달 태블릿PC용 패널은 1870만개 판매돼 노트북용 디스플레이 패널의 판매량 1690만개를 넘어섰다.

태블릿PC용 패널은 연초에는 매달 700만~800만개 팔리는 데 그쳤으나 점차 판매량이 늘어 5월 1000만대 돌파 후 급격한 성장세를 보였다.

반면 노트북용 패널은 지난 2월 이후 2000만대 안팎의 안정적인 판매량을 보여왔으나 지난달에는 평소보다 300만~400만대 줄었다.

디스플레이 패널의 판매량은 실제 제품 판매량의 선행 지수라는 점에서 이 수치는 앞으로 태블릿PC 판매량이 노트북 판매량을 따라잡을 것이라는 증거가 될 수 있다.

NPD디스플레이 서치는 노트북 업체들은 패널 주문을 줄이고 태블릿PC 업체들은 주문을 늘려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연말이 다가옴에 따라 태블릿PC 수요가 늘고 중국에서 브랜드가 없는 이른바 '화이트박스' 제품 생산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어린이용 제품과 교육용 제품의 성장도 요인중 하나지만 이는 일시적인 것으로 판단됐다. /연합뉴스

금호타이어 베트남 다문화가정 모국방문자 모집

금호타이어(대표 김창규)는 한국-베트남 수교 20주년을 기념해 베트남 다문화가정이 모국을 찾을 수 있는 모국방문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한다.

참가 대상자는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베트남 여성이다.

다음달 5일까지 금호타이어 홈페이지(www.kumhotire.c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서류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된 10개 가정(총 20명)은 내년 1월 중 베트남을 방문하게 되고, 왕복항공권·체재비·금호타이어 베트남 공장 방문 등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차기 대통령에게 주고 싶은 선물

"열심히 발로 뛰어라" 워킹화 1위
"깨끗한 정치 해달라" 청소기 2위

온라인 쇼핑몰 이용자들은 차기 대통령에게 주고 싶은 선물 1위는 워킹화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픈마켓 11번가(www.11st.co.kr)는 지난 19일부터 일주일간 고객 3562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통령에게 선물하고 싶은 상품'을 조사한 결과 워킹화가 28%로 1위에 올랐다고 26일 밝혔다.

워킹화는 '열심히 발로 뛰며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해달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11번가측은 설명했다.

이어 '깨끗한 정치를 해주세요'라는 의미의 청소기가 22.5%로 2위를 차지했으며 헤드폰(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 주세요·17.6%), 점퍼(경제 찬바람 막아주는 대책 세워주세요·11.1%), 내비게이션(국정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주세요·10.5%)이 3~5위에 올랐다.

'대통령으로 선출하고 싶은 연예인'을 뽑는 설문도 진행됐다. 유재석(48.3%)이 절반에 가까운 득표율을 차지하며 1위에 올랐고 차인표(19.2%), 장동건(11.1%)가 각각 2, 3위를 차지했다. 고현정(5%)은 4위로 여성후보 중 가장 많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차기 대통령이 이뤄주기를 바라는 하는 사안으로는 서민 물가 안정(46.1%)이 1위로 꼽혔다. 이어 청년실업 해소 및 일자리 창출(28.5%), 전월세 대란과 같은 주거문제 해결(14%), 대학등록금 안정화(4.1%) 등의 순이었다.

11번가는 다음달 9일까지 차기 대통령에게 주고 싶은 선물 기획전을 진행한다. 고객들이 선정한 워킹화와 헤드폰, 내비게이션, 청소기 등을 최대 50% 할인해 판매하며 구매자 중 추첨을 통해 모두 1천100명에게 1천100마일리지를 증정한다. /연합뉴스

무역 2년 연속 1조 달러…세계 8위

작년보다 늦은 내달중 달성할 듯

지식경제부는 한국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무역액 1조 달러를 달성할 것이라고 26일 전망했다.

이에 따라 이탈리아를 따라잡고 세계 무역규모 8위 국가가 될 것으로 지경부는 내다봤다.

한국의 무역 순위는 2000~2002년 13위, 2003~2006년 12위, 2007·2008년 11위, 2009년 10위, 2010·2011년 9위였다.

1조 달러 달성 시기는 다음 달이지만 작년(12월5일)보다는 시점이 다소 늦춰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경부는 올해 세계 경기 둔화로 우리나라의 수출·교역이 감소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경쟁국에 비해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1~9월 누적 수출 증가율은 -1.6%로 독일(-5.1%), 대만(-3.9%)보다는 상황이 나은 편이다.

특히 지난달 7~9월에 줄곧 마이너스를 기록하던 수출 증가율이 지난달 플러스로 전환하는 등 경제 회복 전망이 커지고 있다고 지경부는 평가했다.

지식경제부는 26일 홍석우 장관 주재로 대한상공회의소 소회의실에서 수출입동향점검회의를 열고 업계의 수출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

참석자들은 신흥국가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하고 정부와 함께 수입규제 움직임에 잘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정부는 전시회·상담회 등을 열어 시장 개척을 지원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9월 혼인건수 5년만에 최저

작년 동기비 10% 감소 1만9000건 그쳐

지난 9월 혼인신고 건수가 월말에 쇤 추석 등 영향으로 급감하며 5년 만에 2만 건을 밑돌았다.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9월 인구동향을 보면 혼인은 작년 같은 달(2만1100건)보다 10.0% 감소한 1만9000건에 그쳤다.

2만건을 밑돈 것은 2007년 9월(1만8300건) 이후 처음이다.

통상 9월은 혼인 건수가 연중 가장 적은 달이다. 추석이 포함되거나 가까운 시기여서 결혼이 줄어드는 데다 추석 전에 결혼해도 혼인신고가 늦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혼인 건수는 신고 기준으로 집계한다. 혼인 건수가 지난 8월 9.3% 줄어든 데 이어 9월에 감소율이 두자릿수로 확대된 점에 비춰 경기 침체 장기화로 결혼을 미루는 경향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9월 출생아는 작년 같은 달보다 6.9% 늘어난 4만1700명으로 5개월째 증가했다. 사망자는 2만300명으로 작년 9월 수준이었다.

거주지를 옮긴 인구 이동자는 감소세가 크게 둔화했다.

10월 국내 인구 이동자 수는 1.5% 줄어든 64만명으로 8개월째 감소했다.

감소율은 지난 3월 이래 가장 낮았다. 인구 100명당 이동자 수를 말하는 인구이동률도 1.28%로 전월 1.00%보다 높아졌다. /연합뉴스

▼ 코스피지수	1908.51 (-2.82)
▼ 코스닥지수	496.24 (-2.58)
▼ 금리 (국고채 3년)	2.82% (-0.02)
▼ 원·달러 환율	1085.50원 (-0.60)

※수치는 전일 종가 기준